

# 부모전환기에서의 아기돌보기 역할에 대한 연구

—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한국의 부모를 중심으로 —

## Rolleneinstellung bei Kindbezogenen Tätigkeiten während des Übergangs zur Elternschaft bei koreanischen Eltern

한남대학교 가정교육학과

조교수 : 梁 明 叔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Han Nam University*

*Associate Prof. : Myong Suk, Yang*

### 목 차

I. 서 론	IV. 결 과
II. 이론적 배경	V. 요약 및 결론
III. 연구 방법	참고문헌

### = ABSTRACT =

Den Ausgangspunkt für die Untersuchungen der Studie bildeten die Auswirkungen des Roll-  
enwandels auf das elterliche Verhalten. Um die praktische Durchführung im Rahmen einer  
Untersuchung zu ermöglichen, beschränkt sich auf eine bestimmte Phase des Familienlebens,  
nämlich den Übergang zur Elternschaft. Die Frage der Untersuchung gilt den potentiellen  
Veränderungen, dienen Rolleneinstellungen und Tätigkeitsverteilung über kindbezogene The-  
men beim Übergang zur Elternschaft unterworfen sind.

Die Ergebnisse hinsichtlich der Einstellungen vor der Geburt des Kindes zu Pflgetätigkeiten  
und den Umgang mit dem Baby zeigten, daß die koreanischen Eltern solche Tätigkeiten meis-  
tens als Aufgabe der Mutter ansehen. Die Differenzen zwischen Einstellungen(vor der Geburt)  
und Verhalten(nach der Geburt) sind nicht signifikant. Dies bedeutet, daß die Unterschiede  
zwischen Einstellungen und Verhalten in bezug auf Pflgetätigkeiten im Umgang mit dem  
Baby zwischen Erst-und Zweiteltern vor und nach der Geburt wenn überhaupt, dann nur  
schwach differenzieren. Es kann also festgestellt werden, daß bei koreanischen Eltern nur wenige  
Konflikte zwischen Einstellungen und Verhalten bezüglich der Pflgetätigkeiten im Umgang

mit dem Baby existieren. Obwohl ein sozialer Wandel bzw. Rollenwandel mit der Industrialisierung in Korea auch stattgefunden hat, bleibt bei koreanischen Eltern immer noch die traditionelle Einstellung bestehen. Aber es gibt immerhin eine gewisse egalitäre Tendenz dahingehend, daß bei jungen Ehepaaren gleichberechtigte Rolleneinstellungen zunehmen. In einer weiteren Fragestellung wurde der Zusammenhang zwischen rollenbezogenen Einstellung während der Schwangerschaft und rollenbezogenen Verhalten nach der Geburt untersucht. Der Zusammenhang erwies sich als eher gering. Dabei ergaben sich keine neuen Hinweise auf Gründe für die Zusammenhangschwäche.

## I. 서 론

본 연구는 최근 10여 년간 한국에서 일어났던 사회변화 가운데, 특히 경제성장 및 교육수준의 향상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진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변화되는 남녀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아기돌보기와 관련된 일련의 역할 기대와 역할 수행 및 이에 대한 만족도를 가족발달시기 중에 특히 임신에서 출산으로 이어지는 부모전환기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자녀와 둘째자녀를 임신하여 출산하는 부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는데, 이는 첫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부부에게서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보다 전환기에 따른 변화가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 아래 이루어졌다. 그러나 표집과정에서 셋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의 표집수는 통계적으로 비교가 어려워 제외되었다. 이에 첫째자녀와 둘째자녀를 출산하는 부부를 중심으로 아기돌보기와 관련하여 임신기의 역할 기대와 자녀 출산 후의 실제 역할 수행 및 이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고, 역할 기대와 역할 수행에서의 일치도 및 부부간의 일치도 그리고 이에 관련된 만족도에 대하여 자녀의 임신기와 출산 후 3개월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임신기의 역할 기대와 실제 자녀 출산 후의 역할 수행의 차이 및 배우자 간의 역할 기대의 차이가 역할 분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첫째자녀와 둘째자녀를 출산하는 부모들의 비교를 통하여 부모 전환기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부모전환기에 대한 개념 및 역할기대와 역할 수행의 관계

먼저 부모전환기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이 전환기의 개념은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가족사회학 측면에서는 주로 '위기'에 의한 발달로 인식하였으며(Hill, 1949; LeMaster, 1957), 심리학에서는 Rossi(1968)가 이와는 달리 '중립적' 입장에서 이 전환기를 연구하였다. 이에 Schneewind(1983)는 이 Rossi의 중립적 개념을 생태학적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였으며, Golger-Tippelt(1985, 1988)는 이 개념을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연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부모로의 전환기에 대한 개념은 이 시기의 질적 내지는 양적인 변화가 가족의 발달에 있어서, 장애의 요인이 되어 부부에게 위기로 대두되는지 아니면 축진의 요인이 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지고 있다(양명숙, 1991).

첫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에게 있어서 자녀의 출생은 부부중심의 2인 관계가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관계, 즉 3인 관계로 전환되는 시기로,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즉 자녀의 출산으로 부부는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새로운 역할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성별의 분업에 초점을 맞춘 기능주의적 역할개념에 바탕을 둔 전통적인 역할관에서는 아버지는 가족의 가장으로서 도구적 역할을 담당하고, 어머니는 표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Parsons & Bales, 1955), 가사

일과 육아 등은 여성적인 일로만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관은 현대 사회의 특성과 함께 서서히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여성들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취업여성들이 늘어남에 따라 맞벌이 부부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대가족에 있어서 성별 분업을 강조한 전통적인 역할관은 많은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Gloger-Tippelt, 1988 ; Zahlmann-Willenbacher, 1979).

이러한 역할의 갈등은 역할에 대한 기대와 실제로 행하는 역할 수행의 차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Six, 1980), 이러한 문제는 주로 역할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Krech, Crutchfield & Ballachey (1962)은 태도는 가치관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고 하였으며, 또한 Lapierre(1934)는 가치관과 실제 태도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이들의 관계는 오직 실제 상황에서만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Lauer(1971)는 가치관의 기능적인 측면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가치관에 대한 연구'에서 아래와 같이 가치관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 1) 가치관은 일련의 정신적인 과정이며, 2) 가치관은 한 개인의 태도에 대하여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3) 가치관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에 대한 대상과 종류를 선택하는데 촉매작용을 하며, 4) 가치관은 혁신에 대한 태도를 저해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편견 등으로 가치관과 태도가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5) 가치관은 또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6) 가치관은 태도에 종속되어 있다.

이에 Six(1980)는 가치관과 태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가치관이 얼마나 태도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가를 규명하는데 있다고 하였으며, Warner와 DeFleur(1969), Wicker(1969)는 가치관과 태도의 일관성은 규정지을 수 없다고 보고, 단지 이들의 관계를 통하여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Mummendey (1979)는 태도라는 것은 간단하게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복합적인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가치관과 태도의 관계를 규명지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치관과 태도의 관계를 역할 기대와 역할

수행의 차이에 의한 역할 갈등을 통하여 살펴보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역할 가치관에 대하여서는 대체로 평등주위적 역할관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역할 수행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경향을 고수하고 있기에 가정내에서 부부간의 역할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Adams(1986)는 부부간의 역할 갈등은 역할에 대한 태도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며, 특히 남편은 전통적이고 아내는 평등적인 가치관을 가질 때 부부관계는 불만족스럽다고 하였다(옥선화, 1993). 따라서 옥선화(1993)는 자신과 배우자의 역할 수행 적합성과 상대방의 기대에 대한 순응은 가족 역할 수행으로 부터 발생하는 만족도에 가장 강력한 예측치가 된다고 하였다.

산업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유교사상에 의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지배적이었던 한국의 가정생활에도 가족의 기능과 구조에 변화를 초래하면서 많은 역할 갈등을 야기하게 되었다(조은, 1984 ; 이연주, 1984). 따라서 한국의 역할 분담에 대한 연구들은 산업화와 더불어 가부장제에 의한 전통적인 역할 개념에서 성별 분업을 떠나서 남녀의 평등주의에 입각한 역할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도기적인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어졌다(김명자, 1981 ; 류시중, 1973 ; 류시중 · 박경구, 1982 ; 옥선화, 1980, 1982 ; 이정연, 1982, 1983 ; 임정빈 · 정혜정, 1986 ; 정해은 · 서병숙, 1983 ; 최신덕, 1972, 1973 ; 최외선, 1979 ; 최재석, 1971).

또한 최근에는 가족의 발달단계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부모전환기를 중심으로 부부의 관계 변화에 대한 연구(고선주 · 옥선화, 1993 ; 박숙자, 1991 ; 이숙현, 1990 ; 양명숙, 1991)들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기를보기 역할에 대한 부부간의 역할 변화를 첫째자녀와 둘째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의 비교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표집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한국의 20세 이상에서 38

세 미만의 첫자녀와 둘째 이상의 자녀를 임신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방법은 단기 종단적 연구로 1차 조사는 임신중인 부부(약 임신 5, 6개월을 중심으로)를 대상으로 1988년 11월에서 1989년 1월 사이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군 지역에서 산부인과를 찾은 임신부를 면접한 후 질문지를 배부하여 각 쌍의 부부를 조사하였고, 2차 조사는 자녀가 출생한지 3개월이 지난 후 1차 조사에 응답한 부부만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우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배포한 후에 우편 내지는 인편으로 수거하였다. 1차 조사에 분석된 자료는 총 130쌍으로, 질문지에 불성실하게 응답된 자료와 셋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의 수(4쌍)가 통계학적 비교 분석이 불가능하여 제외되었다. 2차 조사는 이들 중에 89쌍만이 통계 분석이 가능하였다.

## 2. 측정도구 및 자료의 분석방법

측정도구로는 독일 뒤셀도르프 하인리히-하이네 대학교 발달 및 사회 심리학 연구소에서 국제 비교연구를 위하여 독일과 한국을 중심으로 연구자와 공동제작한 질문지중에 아기돌보기에 대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먼저 자녀의 임신기에는 아기돌보기에 대하여 '당신은 젖먹이나 어린 아이를 돌보는 아래와 같은 일을 근본적으로 누가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로 32개 문항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대답은 '거의 다 어머니', '더 자주 어머니', '둘이 거의 같이', '더 자주 아버지', '거의 다 아버지', 그리고 '기타'인 경우는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고, 아주 드물게 일어난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에 '거의 다 어머니'에 1점, '더 자주 어머니'에 2점, '둘이 거의 같이'에 3점, '더 자주 아버지'에 4점, '거의 다 아버지'에 5점을 주었으며, 기타는 점수에서 제외하였다. 자녀의 출생 후 3개월에는 실제로 누가

행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이에겐 생후 3개월된 유아에게 적용될 수 있는 24개 문항만이 질문되었다.

실제 역할 분담에 대한 만족도는 '이대로 만족스럽다', '배우자(남편/아내)가 좀더 나에게 양보해야 한다', '배우자(남편/아내)가 좀더 자주 해야 한다'로 응답되었고, 13개 문항에 대하여서만 질문되었다. 이에 '배우자가 좀더 나에게 양보해야 한다'에 1점, '이대로 만족스럽다'에 2점, '배우자가 좀더 자주해야 한다'에 3점을 주었다. 이에 대한 반분법(Split-half method)에 의한 신뢰도는 표 1에서와 같다.

자료 처리는 SPSS/PC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사용된 통계방법은 주로 비모수적 검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주로 빈도, 평균치, 중간치, 적률 상관계수, Mann-Whitney-U-Test 등이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조사대상자는 총 130쌍이었으며, 이중에 76(58.5%) 쌍은 첫자녀를 임신한 부부였으며, 54(41.5%) 쌍은 둘째자녀를 임신하여 출산하는 부부였다. 이중에 2차 조사에 응한 대상자는 89쌍으로 47쌍(52.8%)이 첫째자녀를 출산한 부부였으며, 42쌍(47.2%)은 둘째자녀를 출산한 부부였다. 이에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1차 조사대상자 130쌍에 대하여 살펴보면 어머니들의 평균 나이는 조사당시 27.4세였으며(최소=21.0세, 최고=35.0세), 아버지의 나이는 평균 30.1세(최소=25.0세, 최고=43.0세)로 나타났다.

표 2에서는 제 1차 조사당시의 임신개월을 나타내고 있다. 130명 중 13명의 임신부에서는 임신개월이 누락되어 117명만이 분석되었으며, 이들 중

표 1. 아기돌보기에 대한 반분법에 의한 신뢰도

시 기	측 도	어머니	아버지
1차 시기	역할 기대에 대한 질문지(32개 문항)	0.843	0.884
2차 시기	역할 수행에 대한 질문지(24개 문항)	0.845	0.865
2차 시기	역할 분담에 대한 만족도(13개 문항)	0.746	0.850

평균 임신개월은 5.4개월이었으며, 75% 이상이 5, 6, 7개월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부모들의 종교 분포는 표 3과 같다.

교육수준은 표 4에서와 같이 대체적으로 아버지들의 교육수준이 어머니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이상이 어머니집단에서는 43.9%, 아버지집단에서는 67.7%로 나타났다. 표 5의 직업별 분포표를 보면, 130명의 어머니들 중에 25.4%가 직업을 가졌고, 74.6%는 직업이 없었다.

아버지들 중에서는 96.8%는 직업이 있었으며, 2.3%는 직업이 없었다. 월평균 소득은 어머니들의 응답을 기준으로 볼 때 1,409,244원( $s=64102$ , Median=60,000원)이며, 아버지들의 응답을 기준으로 볼 때 평균수입은 1,367,177원( $s=62798$ , Median=675,000)으로 월평균 소득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일부 응답자들의 월소득이 매우 높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분포도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기타 경기도 지역은 화성군, 성남시, 시영, 광명시, 부천, 과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2. 임신 개월 (N=117)

개월	%
2	1.7
3	8.5
4	9.4
5	36.8
6	21.4
7	14.5
8	6.8
9	.9
계	100.0

표 3. 종교 분포도

어머니=M, 아버지=V, (N=130)

	M %	V %
종교없음	37.7	48.5
기독교	25.4	20.0
천주교	11.5	7.7
불교	23.1	21.5
기타 종교	1.5	.8
무응답	.8	1.5
계	100.0	100.0

2. 아기돌보기에 대한 역할 기대와 수행 및 그 만족도의 분포도

아기돌보기에 대한 역할 기대의 분포도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임신기인 1차 조사에 사용된 32개 문항에 대한 역할 기대에서, 대부분의 아기돌보기는 어머니들의 일이라고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은 응답하였고, 이중에서도 '12. 적목쌍기도와주기', '14. 장난감 고르기/사기', '15. 아이와

표 4. 교육수준 분포도

어머니=M, 아버지=V, (N=130)

	M %	V %
무 학	.0	.0
국 졸	.8	.0
중 졸	4.6	.8
고 졸	36.9	21.5
전문대졸 및 대학 중퇴	13.8	10.0
대 졸	40.8	51.5
대학원졸 이상	3.1	16.2
계	100.0	100.0

표 5. 직업별 분포도

어머니=M, 아버지=V, (N=130)

직업분류	M %	V %
전문 관리직	1.5	10.0
전문 직	10.8	18.5
사무 직	8.5	42.3
판매 직	2.3	16.2
생산 직	.0	3.8
무응답	76.9	9.2
계	100.0	100.0

표 6. 지역 분포도(어머니 응답기준) (N=130)

지역	M %	V %
과 주	.8%	마 산 8.9%
진 해	3.8%	부 산 8.5%
경 주	2.3%	서 울 56.9%
인 천	10.8%	창 원 4.6%
기타 경기도 지역	6.9%	울 산 2.3%
울 주	.8%	수 원 .8%
		무응답 .8%
계		100.0%

장난치며 놀아주기', '24. 유모차에 태워서 나가기' 등은 부모 공동의 일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자녀의 출산 후에 실제로 누가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있어서는 '14. 장난감 고르기/사기', '25. 외출시 아기를 안거나 업고 나가기'에서 부모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에서는 거의 다 어머니들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 분담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대부분 만족하고 있으나,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이 좀더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역할 기대와 역할 수행의 관계

역할 기대와 이에 따른 역할 수행의 관계를 표 7에서와 같이 살펴보면 어머니들의 역할 기대와

이에 대한 실제 수행의 일치도는 27.1%로 '19. 외출시 아기를 안거나 업고 나가기'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12. 보모(아기돌보는 사람 구하기)'에서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들에게서는 표 8에서와 같이 '11. 아이가 아플때 돌봐주기/놀아주기'에서와 '15. 의사에게 데리고 가기'에서 27.9% 가장 낮게 나타났고, '2. 목욕시키기'에서 5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역할 기대와 이에 대한 역할 수행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역할 기대와 이에 대한 실제 어머니들의 역할 수행에 대한 관계는 대체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아버지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아기돌보기에 대한 역할 기대와 실제의 역할 수행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임신기의 역할기대와 자녀 출산후의 역할수행에 대한 어머니의 일치도  
적률상관계수=r, 유의도=p, 역할기대에 대한 역할수행의 일치 비율=diag. f.

문 항	r	p	diag. f
1. 먹이기	0.35	0.01	58.1 %
2. 목욕 시키기	0.22	0.02	43.8 %
3. 기저귀 갈기	0.42	0.00	35.6 %
4. 잠재우기	0.29	0.01	41.7 %
5. 잠자리에 누이기	0.24	0.01	39.7 %
6. 밤에 일어나 아기 돌보기	0.12	0.14	29.4 %
7. 달래주기/얼러주기	0.27	0.01	41.9 %
8. 노래 불러 주기	0.18	0.05	31.0 %
9. 아이와 손이나 손가락 놀이하기	0.07	0.26	37.6 %
10. 장난감 고르기/사기	0.16	0.07	48.3 %
11. 아아가 아플때 돌봐주기/놀아주기	0.17	0.06	31.8 %
12. 보모(아기돌보는 사람) 구하기	0.37	0.03	59.2 %
13.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기/소리 흉내내기	0.17	0.06	37.5 %
14. 품에 안아서 어루만져주기	0.18	0.05	36.0 %
15. 의사에게 데리고 가기	0.04	0.37	27.4 %
16. 우유 및 이유식 등 먹이기	0.28	0.01	49.4 %
17. 아이와 익살부리기	0.23	0.02	41.2 %
18. 유모차에 태워서 나가기	0.29	0.01	36.4 %
19. 외출시 아기를 안거나 업고 나가기	0.25	0.01	27.1 %
20. 밤에 아기가 울때 일어나 돌보기	0.25	0.01	29.1 %
21. 외출시 아이를 위한 옷, 음식, 장난감 등을 챙겨서 싸기	0.13	0.12	40.1 %
22. 아이옷 마련하기	0.20	0.03	39.6 %
23. 트림하도록 팔에 안기	0.26	0.01	44.0 %
24.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기	0.17	0.01	40.5 %

역할 수행에 대한 부부간의 일치도와 이에 따른 만족도를 살펴보면 표 9와 표 10, 표 11에서와 같다. 먼저 역할 수행에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일치도는 '17. 아이와 익살부리기'에서 47.7%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2. 목욕시키기'에서는 77.5%로 가장 높은 일치도를 나타내었는데, 이에 따른 상관계수도 '아이와 익살부리기'에서 0.33, '목욕시키기'에서는 0.61로 나타나 이들의 일치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 역할 수행에 따른 만족도와 역할 기대와 역할 수행의 차이에 따른 만족도 및 부부간의 역할 기대의 차이에 따른 만족도는 표 10과 표 11에서 볼 수 있다. 이에 표 10에서 어머니들의 역할 수행에 따른 만족도를 살펴보면, '11. 밤에 아이가 울 때 일어나 돌보기'에서 53.5%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7. 보모(아기돌보는 사람) 구

하기'는 9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1의 아버지들의 만족도는 '4. 밤에 일어나 아기돌보기'와 '11. 밤에 아이가 울 때 일어나 돌보기'에서 85.9%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1. 먹이기'에서 9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역할 수행에 따른 만족도는 어머니들보다 아버지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의 아기돌보기가 어머니들에 의해서 수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밤에 일어나 아기를 돌보는 것에 대하여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만족도가 다른 것들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표 10과 표 11에서는 역할 기대와 역할 수행의 차이 및 배우자간의 가치관 차이가, 즉 역할 기대의 차이가 역할 분담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역할 분담에 따른 만족도(r)와

표 8. 임신기의 역할기대와 자녀 출산후의 역할수행에 대한 아버지의 일치도  
 적률상관계수=r, 유의도=p, 역할기대에 대한 역할수행의 일치 비율=diag. f.

문 항	r	p	diag. f
1. 먹이기	0.23	0.02	47.6%
2. 목욕 시키기	0.37	0.00	54.2%
3. 기저귀 갈기	0.31	0.00	45.7%
4. 잠재우기	0.22	0.02	41.7%
5. 잠자리에 누이기	0.09	0.22	45.9%
6. 밤에 일어나 아기 돌보기	-0.05	0.32	36.5%
7. 달래주기/얼러주기	0.24	0.01	36.1%
8. 노래 불러 주기	0.31	0.00	29.4%
9. 아이와 손이나 손가락 놀이기	0.10	0.17	35.6%
10. 장난감 고르기/사기	0.21	0.03	38.4%
11. 아이가 아플때 돌봐주기/놀아주기	0.24	0.01	27.9%
12. 보모(아기돌보는 사람) 구하기	-0.15	0.47	36.0%
13.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기/소리 흉내내기	0.05	0.34	35.8%
14. 품에 안아서 어루만져주기	-0.05	0.33	37.6%
15. 의사에게 데리고 가기	0.00	0.50	27.9%
16. 우유 및 이유식 등 먹이기	0.08	0.25	45.2%
17. 아이와 익살부리기	0.33	0.00	39.5%
18. 유모차에 태워서 나가기	0.19	0.05	37.0%
19. 외출시 아기를 안거나 업고 나가기	0.35	0.00	29.8%
20. 밤에 아이가 울때 일어나 돌보기	0.12	0.15	34.1%
21. 외출시 아이를 위한 옷, 음식, 장난감 등을 챙겨서 싸기	-0.01	0.45	44.7%
22. 아이옷 마련하기	0.21	0.03	47.7%
23. 트림하도록 팔에 안기	0.17	0.06	39.2%
24.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기	-0.06	0.29	41.7%

표 9. 아기돌보기 역할수행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일치도  
 적률상관계수=r, 유의도=p, 역할기대에 대한 역할수행의 일치 비율=diag. f.

문항	r	p	diag. f
1. 먹이기	0.58	0.00	76.5%
2. 목욕 시키기	0.61	0.00	77.5%
3. 기저귀 갈기	0.34	0.00	65.5%
4. 잠재우기	0.41	0.00	63.8%
5. 잠자리에 누이기	0.49	0.00	63.9%
6. 밤에 일어나 아기 돌보기	0.62	0.00	76.4%
7. 달래주기/얼러주기	0.48	0.00	56.5%
8. 노래 불러 주기	0.54	0.00	59.9%
9. 아이와 손이나 손가락 놀이하기	0.29	0.00	48.9%
10. 장난감 고르기/사기	0.55	0.00	57.7%
11. 아이가 아플때 돌봐주기/놀아주기	0.51	0.00	50.0%
12. 보모(아기돌보는 사람) 구하기	0.56	0.00	69.6%
13.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기/소리 흉내내기	0.40	0.00	52.9%
14. 품에 안아서 어루만져주기	0.41	0.00	52.9%
15. 의사에게 데리고 가기	0.60	0.00	59.0%
16. 우유 및 이유식 등 먹이기	0.44	0.00	65.9%
17. 아이와 익살부리기	0.33	0.00	47.7%
18. 유모차에 태워서 나가기	0.53	0.00	50.8%
19. 외출시 아기를 안거나 업고 나가기	0.69	0.00	57.9%
20. 밤에 아이가 올때 일어나 돌보기	0.62	0.00	64.7%
21. 외출시 아이를 위한 옷, 음식, 장난감 등을 챙겨서 싸기	0.39	0.00	68.9%
22. 아기옷 마련하기	0.65	0.00	68.9%
23. 트림하도록 팔에 안기	0.36	0.00	59.2%
24.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기	0.51	0.00	56.6%

표 10. 아기돌보기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  
 역할수행에 따른 만족도=(r1), 역할기대와 역할수행의 차이에 따른 만족도=(r2)  
 배우자간의 역할기대의 차이에 따른 만족도=(r3), 만족도 비율=zu. % 사례수=n

문항	r1	p	r2	p	r3	p	zu. %	n
1. 먹이기	-0.02	0.43	-0.16	0.08	-0.59	0.29	86.4%	81
2. 목욕시키기	0.52	0.32	0.22	0.42	-0.19	0.04	81.3%	80
3. 기저귀갈기	-0.84	0.23	-0.10	0.39	-0.10	0.18	75.3%	81
4. 밤에 일어나 아기돌보기	-0.06	0.28	-0.03	0.39	-0.15	0.08	70.2%	84
5. 달래주기/얼러주기	0.89	0.21	-0.10	0.18	-0.36	0.38	65.1%	86
6. 장난감 고르기/사기	0.35	0.00	-0.37	0.00	-0.07	0.26	72.9%	85
7. 보모(아기돌보는 사람) 구하기	0.04	0.42	-0.27	0.10	-0.20	0.03	94.3%	35
8. 아이를 의사에게 데리고 가기	0.04	0.38	-0.03	0.41	-0.13	-0.11	81.0%	84
9. 우유 및 이유식 먹이기	-0.50	0.33	-0.06	0.29	-0.07	0.25	81.7%	82
10. 유모차에 태워서 나가기	0.01	0.15	-0.03	0.40	-0.16	0.06	66.3%	80
11. 밤에 아이가 올때 일어나 돌보기	-0.24	0.42	-0.04	0.36	-0.18	0.05	53.5%	86
12. 외출시 아이를 위한 옷, 음식, 장난감들을 챙겨서 싸기	-0.12	0.13	0.05	0.34	-0.10	0.18	78.4%	88
13. 아기옷 마련하기	-0.04	0.36	0.05	0.31	-0.03	0.40	87.4%	87



표 11. 아기를 돌보기에 대한 아버지의 만족도

역할수행에 따른 만족도=(r1), 역할기대와 역할수행의 차이에 따른 만족도=(r2)

배우자간의 역할기대의 차이에 따른 만족도=(r3), 만족도 비율=zu. % 사례수=n

문항	r1	p	r2	p	r3	p	zu. %	n
1. 먹이기	-0.32	0.00	0.21	0.03	-0.43	0.34	95.2%	84
2. 목욕시키기	-0.01	0.48	-0.14	0.12	0.07	0.27	91.5%	82
3. 기저귀 갈기	-0.10	0.18	0.04	0.36	0.04	0.37	90.5%	84
4. 밤에 일어나 아기를 돌보기	0.28	0.04	-0.34	0.00	0.13	0.11	85.9%	85
5. 달래주기/얼러주기	0.04	0.36	0.01	0.46	-0.03	0.39	87.2%	86
6. 장난감 고루기/사기	0.08	0.23	-0.03	0.40	-0.03	0.41	86.2%	87
7. 보모(아기를 돌보는 사람) 구하기	0.18	0.14	-0.01	0.47	-0.27	0.06	94.6%	37
8. 아이를 의사에게 데리고 가기	0.08	0.23	-0.01	0.46	0.06	0.28	90.7%	86
9. 우유 및 이유식 등 먹이기	0.03	0.38	-0.04	0.37	0.10	0.17	92.9%	84
10. 유모차에 태워서 나가기	0.13	0.12	-0.10	0.20	0.02	0.42	86.9%	84
11. 밤에 아이가 울때 일어나 돌보기	0.17	0.06	-0.18	0.05	0.12	0.14	85.9%	85
12. 외출시 아이를 위한 옷, 음식, 장난감들을 챙겨서 사기	-0.02	0.45	-0.11	0.15	0.04	0.37	90.8%	87
13. 아기옷 마련하기	-0.13	0.11	-0.06	0.29	-0.22	0.02	92.0%	87

역할 기대와 역할 수행의 차이에 따른 만족도(r2) 및 배우자간의 역할 기대의 차이에 따른 만족도(r3)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는데, 역할 기대와 역할 수행의 차이 및 배우자간의 역할 기대의 차이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만족도의 정도가 역할 기대와 역할 수행의 일치도 및 역할 기대의 일치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집단과 둘째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집단의 비교는 표 12에서와 같이 먼저 임신기 동안에 역할 기대에 대하여 질문된 32개의 문항은 자녀의 출산 후에는 24개 문항만이 실제 역할 수행에 대하여 질문되었기에 이에 대한 24개 문항과 나머지 8개 문항은 따로 처리하였다. 이에 '6. 아이 잠잘 시간 정하기', '10. 이야기 책 읽어주기', '11. 그림책 보여주기', '12. 적목살기도와주기', '15. 아이와 장난치며 놀아주기', '22.

숫가락 사용법 가르치기', '27. 놀이터에 가기', '28. 유아체조나 수영가기' 등이다. 그리고 자녀의 출산 후에 역할 분담에 대한 만족도의 13개 문항에 대하여서도 임신기의 역할 기대에서 따로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집단간의 차이를 표 12의 Mann-Whitney-U-Test 결과로 살펴보면, 먼저 임신기에 역할 기대에 대하여 질문된 만족도에 대한 13개 문항에서 아버지집단간에 5%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첫째자녀의 출산을 기다리는 아버지집단에서 둘째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집단보다 평균치가 '3'에 더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는 둘이 거의 비슷하게 말아서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첫째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들이 13개 문항에 대해서는 둘째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집단보다 아기를 돌보기에 대하여 부부 공동의 일로 더 인식하는 경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 집단에서는 10%의 유의수준에서 첫째자녀를 임신

표 12. 첫째자녀와 둘째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의 아기돌보기에 대한 비교

표집수=N, 평균=M, 표준편차=s, Mu=어머니, Va=아버지

변 인		첫째 부모			둘째 부모		
		N	M	s	N	M	s
1. 시기(임신기)							
아기돌보기 (24 문항)	Mu	75	2.58	0.38	54	2.44	0.52
	Va	76	2.39	0.44	54	2.28	0.44
아기돌보기 (13 문항)	Mu	75	2.42	0.43	54	2.23	0.57
	Va	76	2.23	0.47	54	2.04	0.49
아기돌보기 (8 문항)	Mu	75	2.86	0.35	54	2.65	0.51
	Va	76	2.61	0.51	54	2.65	0.48
2. 시기(출생 후 3개월)							
아기돌보기 (24 문항)	Mu	46	1.94	0.48	40	1.84	0.57
	Va	45	2.00	0.52	40	1.96	0.49
아기돌보기 (13 문항)	Mu	45	1.79	0.46	40	1.72	0.50
	Va	44	1.88	0.50	41	1.85	0.47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 (13 문항)	Mu	47	2.16	0.25	42	2.20	0.31
	Va	47	2.07	0.21	42	2.03	0.19
1차 시기와 2차 시기의 차이							
아기돌보기 (24 문항)	Mu	46	-0.67	0.54	40	-0.63	0.58
	Va	45	-0.42	0.60	40	-0.33	0.48
아기돌보기 (13 문항)	Mu	45	-0.63	0.56	40	-0.53	0.58
	Va	45	-0.38	0.60	41	-0.19	0.45

표 13. 첫째자녀와 둘째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의 아기돌보기에 대한 Mann-Whitney-U-Test

표본수= N, 첫째자녀를 출산하는 부모=EE, 둘째자녀를 출산하는 부모=ZE,

표집수=N, 평균=M, 표준편차=s, Mu=어머니, Va=아버지

변 인		N		Mean rang		z(U)	P
		EE	ZE	EE	ZE		
1. 시기(임신기)							
아기돌보기 (24 문항)	Mu	75	54	68.5	60.1	1.261	0.207
	Va	76	54	69.7	59.6	1.498	0.134
아기돌보기 (13 문항)	Mu	75	54	69.6	58.6	1.660	0.097
	Va	76	54	71.7	56.8	2.219	0.027*
아기돌보기 (8 문항)	Mu	75	54	71.1	56.5	2.201	0.028*
	Va	76	54	65.2	66.0	0.116	0.907
2. 시기(출생 후 3개월)							
아기돌보기 (24 문항)	Mu	46	40	46.5	40.0	1.208	0.227
	Va	45	40	44.8	41.0	0.705	0.481
아기돌보기 (13 문항)	Mu	45	40	45.3	40.4	0.899	0.369
	Va	44	41	44.7	42.1	0.480	0.631
역할 수행에 대한 만족도 (13 문항)	Mu	47	42	42.2	48.2	1.095	0.273
	Va	47	42	48.0	41.6	1.170	0.242
1차 시기와 2차 시기의 차이							
아기돌보기 (24 문항)	Mu	46	40	43.8	43.1	0.126	0.900
	Va	45	40	41.4	44.8	0.634	0.526
아기돌보기 (13 문항)	Mu	45	40	41.6	44.6	0.555	0.579
	Va	45	41	39.3	48.1	1.613	0.107

\*5% 유의 수준

한 어머니들이 둘째자녀를 임신한 어머니들 보다 더 부부 공동의 일로 인식하였다. 나머지 8개 문항에 대해서는 어머니집단간에서만 5%의 유의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역시 첫째자녀를 임신한 어머니집단이 더 부부 공동의 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의 출산 후에는 실제 역할 수행에 있어서 어느 집단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만족도를 비롯하여 임신기와 출산 후의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녀의 출산전에는 첫째자녀의 출산을 기다리는 첫째 부모집단에서 이미 자녀가 있는 부모집단보다 육아를 더 부부 공동의 일로 기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자녀의 출생 후에는 자녀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 육아 상황에 있어서는 아기를 돌보기가 대부분 어머니들에 의해서 처리되므로 자녀의 수에 따른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환기에 따른 영향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10여 년간 한국에서 일어났던 사회변화 가운데, 특히 경제성장 및 교육수준의 향상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진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변화되는 남녀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아기를 돌보기와 관련된 일련의 역할 기대와 역할 수행 및 이에 대한 만족도를 가족발달 시기 중에 특히 임신에서 출산으로 이어지는 부모전환기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 변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첫째자녀와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한국의 부모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첫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부부에게서 부모로의 전환기에 따른 변화가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이루어졌다. 그러나 표집과정에서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의 표집수가 통계적으로 비교가 불가능하여 제외되었다. 표집방법으로는 산부인과를 찾은 임산부를 면접한 후에 각 쌍의 부부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조사는 임신기와 자녀의 출

생후 3개월이 지난 시기에 걸쳐서 두차례 실시되었다. 1차 조사에는 총 130쌍, 2차 조사는 이들 중에 89쌍만이 처리되었다. 측정도구로는 독일 뒤셀도르프 하인리히 하이네 대학교 발달 및 사회심리학 연구소에서 국제 비교연구를 위하여 한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연구자와 공동제작한 질문지중에 아기를 돌보기에 관련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1차 조사에 사용된 질문지로는 32개 문항으로, 아기를 돌보기에 대하여 누가 근본적으로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물었으며, 2차 조사 때는 이들 중에 생후 3개월된 아기에 해당되는 역할만으로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로 누가 맡아서 하는지에 대하여 물었다. 이 역할분담에 대한 만족도는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이대로 만족하는가 아니면 배우자가 좀더 자주해야 하는가, 아니면 배우자가 나에게 양보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물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임신기인 1차 조사 때는, 대부분의 아기를 돌보기는 어머니들의 일이라고 한국의 부모들은 응답하였고, 이중에 '12. 적목쌓기도와주기', '14. 장난감고르기/사기', '15. 아이와 장난치며 놀아주기', '24. 유모차에 태워서 나가기' 등은 부모 공동의 일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자녀의 출산 후에는 '14. 장난감 고르기/사기', '25. 외출시 아기를 안거나 업고 나가기'에서만 부모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어머니들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서는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으나,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이 좀더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 기대와 이에 따른 역할 수행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들의 역할 기대와 이에 대한 실제 수행의 일치도는 27.1%로 '19. 외출시 아기를 안거나 업고 나가기'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59.2%로 '12. 보모(아기를 보는 사람)구하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들에게서는 27.9%로 '11. 아이가 아플때 돌봐주기/놀아주기'와 '15. 의사에게 데리고 가기'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2. 목욕시키기'에서는 5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역할 수행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일치도는 '17. 아이와 익살부리기'에서 47.7%로 가장 낮게, '2.

목욕시키기'에서 77.5%로 가장 높은 일치도를 나타내었는데, 이에 따른 상관관계도 0.33과 0.61로 이들의 일치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역할 수행에 따른 만족도와 역할 기대와 역할 수행의 차이에 따른 만족도, 그리고 배우자간의 역할 기대의 차이에 따른 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역할 기대와 역할 수행에서의 차이가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자녀수에 따른 차이는 역할 기대의 13개 문항에서 첫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집단이 둘째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집단보다 5%의 수준에서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첫째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들이 둘째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들 보다 더 13개 문항에 대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되는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8개 문항에서는 어머니집단에서 5%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첫자녀를 임신한 어머니집단이 둘째자녀를 임신한 어머니집단 보다 더 이들 문항에 대하여 부부 공동의 일로 간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자녀의 출산 후에는 어느 집단간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만족도를 비롯하여 임신기와 출산 후의 차이에서도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의 부모들은 아기돌보기에 대하여 이는 주로 어머니들의 일로 간주하고 있으며, 실제로 어머니들에 의하여 거의 다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육아에 대한 역할 기대와 역할 수행의 차이가 갈등의 요인으로 부각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아직도 아기돌보기 등의 육아는 여성적인 일로 간주하기에, 어머니들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것에 대하여 부부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이 좀더 육아에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나이가 젊은 부부일수록 육아도 부부 공동의 일로 생각하는 경향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부모들은 여전히 육아는 어머니의 일로 간주하여 아버지들의 참여가 미흡함을 알 수 있는데,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하여서는 부모 공동의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또한 부모전환기에 따른 역할의 변화는 부모 전환기 동안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체로 안정적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 대상을 첫째자녀와 둘째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집단으로 한정된 점과 조사시기를 임신기와 자녀의 출산후 3개월로 제한한 것 및 통계처리는 주로 비모수적 검정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1) 고선화·옥선화(1993). 부모로기의 전이에 대한 연구 I: 첫째자녀 임신기 부부의 결혼적응. *대한가정학회지* 31(2), 55-67.
- 2) 김명자(1981). 주부의 직업유무에 따른 가정내 역할 수행에 관한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3), 69-80.
- 3) 류시중(1982). 한국 도시 가족의 역할. *경북대학교 인문과학논문집* 17, 29-40.
- 4) 류시중·박경구(1982). 한국 도시 가족의 가사역할의 세력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동양문화* 9, 89-109.
- 5) 박숙자(1991). 첫째자녀 출생과 부부관계의 변화.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여성사회사연구회편* 141-180.
- 6) 옥선화(1982). 한국도시가족의 역할구조분석(1)-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성심여자대학논문집 자연가정과학편* 11, 77-91.
- 7) 옥선화(1982). 한국도시가족의 역할구조분석(2). *성심여자대학논문집 자연가정과학편* 13, 5-34.
- 8) 옥선화(1993). 가족의 역할(제 8 장), *가족학*. 한국가족학연구회편, 서울: 하우 201-220.
- 9) 이연주(1984). 주부의 취업에 따른 가정내의 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4), 131-144.
- 10) 이숙현(1990). 부모로기의 전환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화. *가족학논집* 2, 11-27.
- 11) 이정연(1982). 남편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2) 이정연(1983). 남편의 성역할태도에 관한 연구-전주지역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 131-139.
- 13) 임정빈·정혜정(1986).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 71-93.

- 14) 양명숙(1991). 부모전환기에서의 결혼만족도 연구. 가족학논집 3, 31-53.
- 15) 조은(1984). 산업화와신가부장제 :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한국사회학회편 181-198.
- 16) 최신덕(1973). 도시 부부의 적응에 관한 연구(제2부). 한국문화연구원논총 22, 87-120.
- 17) 최재석(1971). 한국도시가족의 역할 구조. 아세아연구원 14(1), 15-40.
- 18) Gloger-Tippelt, G.(1985). Der Übergang zur Elternschaft - eine *Entwicklungspsychologie und Pädagogische Psychologie* 17, 53-92.
- 19) Gloger-Tippelt, G.(1988). Schwangerschaft und erste Geburt. Stuttgart : Kohlhammer.
- 20) Hill, R.(1949). Families under Stress. New York : Harper and Brothers.
- 21) Krech, D., Crutchfield, R.S. & Ballachey, E.L.(1962). Individual in society. New York : McGraw-Hill.
- 22) Lapiere, R.T.(1934). Attitudes versus Actions. *Social Forces* 13, 230-237.
- 23) LeMasters, E.E.(1957). Parenthood as crisis. *Marriage and Family Living* 19, 352-355.
- 24) Mummendey, H.D.(1979). Zum gegenwärtigen Stand der Erforschung der Einstellungs-Verhaltens-Konsistenz. in H.D. Mummendey(Ed.), *Einstellung und Verhalten*. Bern : Huber.
- 25) Rossi, A.S.(1968).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0, 26-33.
- 26) Schneewind, K.A.(1983). Konsequenzen der Elternschaft. *Psychologie in Erziehung und Unterricht* 30, 161-162.
- 27) Six, B. (1980). Das Konzept der Einstellung und seine Relevanz für die Vorhersage des Verhaltens. In F. Petermann(Ed.), *Einstellungsmessung \* Einstellungsforschung* 55-84. Göttingen : Verlag für Psychologie.
- 28) Warner, L.G. & DeFleur, M.L.(1969). Attitude as an interactional concept : Social constraint and social distance as intervening variables between attitudes and a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4, 153-167.
- 29) Wicker, A.W.(1969). Attitudes versus actions : The relationship of verbal and overt behavioral responses to attitude objects. *Social Issues* 25, 41-78.
- 30) Zahlmann-Willenbach, B.(1979). Kritik des funktionalistischen Konzepts geschlechtsrollen und Arbeitsteilung(60-77), München : Beck.